ISSN 2093-3118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2017년 16호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발굴 연구

2017년 5월

통상연구실 **이준원** 수석연구원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CONTENTS

[요 약] i

Ⅰ. 서론 0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01

2.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02

Ⅱ.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선정 기준 05

Ⅲ.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선정 09

1.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09

2. 교역 · 투자 및 무역장벽 13

3. 자원 확보 14

4. 수출경쟁력 19

5. 국가위험도 21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23

1.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리스트 제시 23

2.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전략적 중요성 및 통상현황 25

3. 정책적 시사점 29

❑ 보고서 내용 문의처

통상연구실 이 준 원 수석연구원 (☎ 02-6000-5342, jwlee138@kita.net)

요 약

최근 세계의 통상환경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영국의 EU 탈퇴,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FTA 정책에도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FTA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한 신흥국을 대상으로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을 탐색하고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 FTA 체결 시 수출 증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규모와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교역 · 투자 및 무역장벽 :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교류가 많은 것이 유리하며, 각국의 무역장벽은 FTA 추진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③ 자원 확보 : 자원부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세계 주요국들이 자원 확보를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FTA 추진 시 자원 확보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④ 수출경쟁력 : FTA 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상대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
⑤ 국가위험도 : FTA 체결 시 FTA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및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위험도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한 결과 단기적으로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나미비아), 우즈베키스탄, 코트디부아르, 중기적으로 방글라데시, 가나, 볼리비아, 알제리, 장기적으로는 나이지리아, 이라크, 예멘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국가들은 대체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며 이 국가들은 주로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경쟁국인 미국, 중국, ASEAN과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신규 FTA 정책을 추진할 때, 선정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FTA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선도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본 문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통상국가로서 세계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8년 말부터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추진

● 이에 정부는 2003년 9월 'FTA 추진 로드맵', 2015년 4월 '新FTA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통합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정책 추진

- 2015년 4월 발표된 '新FTA 추진 전략'은 메가 FTA 대응, 기체결 FTA 개선, 유망 신흥시장과의 신규 FTA 추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1)]

- **(메가 FTA 대응)** TPP, RCEP 등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가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우리가 기존에 구축한 FTA 플랫폼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통합의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

- **(기체결 FTA 개선)** 기체결 FTA 중 시장개방수준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활용률이 낮은 한·ASEAN FTA, 한·인도 CEPA를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추진 필요

- **(유망 신흥시장과의 신규 FTA 추진)** 상대국의 경제·국제 정치적 상황 및 통상정책을 고려해 중동, 중남미 등의 신규 FTA 대상국을 권역별로 분류하고 FTA를 추진

<권역별 신규 FTA 추진 계획>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SIECA, 에콰도르, MERCOSUR[2)]	요르단, GCC[3)], 이스라엘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1) 한국무역협회(2015), "무역업계가 바라본 新FTA 추진 전략", Trade Focus 재인용
2) MERCOSUR(남미공동시장 : Mercado Comú ndel 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
3) GCC(걸프협력회의 : 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

■ 최근의 세계의 통상환경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영국의 EU 탈퇴,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급변하고 있으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 설정이 필요

-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확대, NAFTA 재협상 등 자국우선주의에 의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 브렉시트,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통상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을 발굴하여 신규 시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FTA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 이외 신흥국가들을 대상으로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을 탐색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2.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 우리나라는 5월 현재까지 총 58개국과 FTA를 타결, 이중 52개국과 총 15건의 FTA가 발효 중

- 2004년 한 · 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다수의 FTA가 발효 중이며, 한 · 중미 FTA 협상이 타결됨

- 이외 한 · 중 · 일 FTA, RCEP, 한 · 에콰도르 SECA, 한 · 이스라엘 FTA가 협상 중이며, 멕시코, GCC, MERCOSUR, EAEU 국가들과 협상 재개 및 여건 조성 중임

- 또한 기체결 FTA 중 한 · ASEAN FTA, 한 · 인도 CEPA, 한 · 칠레 FTA는 개선협상중임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진행 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15건)	칠레	1999년 12월 협상 개시, 2004년 2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년 1월 협상 개시, 2006년 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2005년 1월 협상 개시, 2006년 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2005년 2월 협상 개시, 2007년 6월 상품무역협정 발효, 2009년 5월 서비스협정 발효, 2009년 9월 투자협정 발효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2006년 3월 협상 개시, 2010년 1월 발효	BRICs 국가, 거대시장
	EU	2007년 5월 협상 개시, 2011년 7월 잠정발효, 2015년 12월 전체 발효	세계 최대 경제권
	페루	2009년 3월 협상 개시, 2011년 8월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06년 6월 협상 개시, 2012년 3월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2010년 4월 협상 개시, 2013년 5월 발효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유럽,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09년 5월 협상 개시, 2014년 12월 발효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캐나다	2005년 7월 협상 개시, 2015년 1월 발효	북미 선진 시장
	중국	2012년 5월 협상 개시, 2015년 12월 발효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뉴질랜드	2009년 5월 협상 개시, 2015년 12월 발효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년 8월 협상 개시, 2015년 12월 발효	우리의 제3위 투자대상국
	콜롬비아	2009년 12월 협상 개시, 2016년 7월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타결 (1건)	중미	2015년 6월 협상 개시, 2017년 3월 가서명 (중미 6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중남미 신시장 창출
협상 진행 (4건)	한중일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총 12차례 공식협상, 총 5차례 실무협상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총 17차례 협상 (RCEP: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에콰도르 SECA	2015년 8월 협상 개시, 총 5차례 협상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이스라엘	2016년 5월 협상 개시, 3차례 협상	창초경제 모델 국가
개선 협상 (3건)	한ASEAN 업그레이드	2016년 7월 제 14차 이행위원회 개최	교역확대 및 통상환경 반영
	한인도 업그레이드	2016년 10월 제1차 협상 개최	교역확대를 위한 주력수출 품목 양허, 원산지 기준 개선
	한칠레 업그레이드	2016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통상환경 변화 반영
협상 재개, 여건 조성 (4건)	멕시코	2007년 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2008년 6월 제2차 협상 개최 후 중단	북중미 시장 교두보
	GCC	2008년 7월 협상 개시, 2009년 7월 제3차 협상 개최 후 중단 (GCC: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자원부국, 기업선호도 1위
	MERCOSUR	2016년 11월 예비협의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남미 최대 시장
	EAEU	2016년 8월 민간공동연구 완료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성장잠재력과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신흥시장

자료 :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우리나라의 FTA 발효 대상국 교역 비중은 한 · 칠레 FTA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한 · 중 FTA 발효 후 급격하게 증가

- 2015년 한 · 중 FTA 발효 시 대 FTA 발효국 교역 비중은 67.3%로 2014년 40.2%에 비해 27.1% 증가

다만, 2016년 FTA 발효 대상국 교역 비중이 67.8%로 향후 협상 중인 FTA 및 협상 진행 중인 FTA를 통해 FTA 대상국 교역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교역이 보다 많은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FTA 발굴이 필요

- 향후 FTA 타결 국가(중미 6개국), FTA 협상 중인 국가(일본,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 협상여건 조성 중인 국가(멕시코, GCC, EAEU 등)와 FTA를 체결했을 경우, 2016년 기준 발효국 교역 비중은 88.9%임

- 협상 여건 조성 중인 국가와의 빠른 FTA 추진 또한 중요하지만, 기존에 검토되지 않았던 국가와의 신규 FTA 또한 중요한 과제임

<한국의 FTA 발효 대상국에 대한 교역 추이>

(백만 달러, %)

FTA발효국	2004	2006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칠레	2,642	5,379	7,299	7,168	7,239	7,146	7,116	6,893	6,144	5,316
싱가포르	10,114	15,376	18,809	23,094	29,806	32,564	32,658	35,053	22,953	19,265
EFTA	2,657	3,926	4,676	9,221	6,995	9,208	8,850	7,653	11,425	8,155
ASEAN	46,407	61,809	71,858	97,294	124,922	131,122	135,336	137,995	119,855	118,837
인도	5,482	9,174	11,224	17,109	20,548	18,843	17,556	18,057	16,270	15,786
EU	62,017	78,511	92,806	92,227	103,150	99,815	105,087	114,052	105,278	98,513
페루	528	1,035	1,506	1,983	3,318	3,112	3,423	2,825	2,353	2,449
미국	71,632	76,838	82,985	90,219	100,777	101,866	103,564	115,568	113,857	109,678
터키	2,460	3,230	4,369	4,269	5,876	5,224	6,350	7,320	7,039	6,127
호주	10,816	16,001	17,924	27,098	34,480	32,238	30,348	30,696	27,268	22,677
캐나다	5,572	6,712	6,761	8,453	11,540	10,075	9,920	10,359	8,606	8,827
중국	79,348	118,016	145,013	188,411	220,617	215,107	228,922	235,370	227,374	211,413
뉴질랜드	1,499	1,640	1,870	2,094	2,578	2,804	2,886	3,257	2,488	2,403
콜롬비아	566	1,118	1,237	1,821	1,994	1,882	1,549	2,117	1,452	1,286
발효국 비중	0.6	3.9	11.5	14.7	24.7	34.8	36.0	40.2	67.3	67.8
전체	478,307	634,847	728,335	891,596	1,079,627	1,067,454	1,075,218	1,098,179	963,255	901,619

주 : 음영은 한국과 FTA를 발효한 이후 기간을 표시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Ⅱ.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선정 기준

■ 최근의 세계적 통상환경은 보호무역주의와 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한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은 다양한 기준을 두고 설정해야 함

■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FTA 체결 시 수출 증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규모와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

● 현재 시장규모는 GDP, 1인당 GDP, 총 인구수로 측정하며, 성장잠재력은 IMF의 GDP 증가율 전망치[4]를 이용하여 측정

■ **(교역 · 투자 및 무역장벽)** FTA 체결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교류가 많은 것이 유리하고, 각국의 무역장벽은 FTA 추진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임

● 무역장벽을 측정하는 기준은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으로, 관세율이 높을수록 관세 철폐 시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는 FTA 체결 후 이행의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이 낮은 국가와의 FTA 추진이 유리

●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관련국가 간 교역 규모, 투자규모를 비교하고, 대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수준을 비교분석

■ **(자원 확보)** 자원부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세계 주요국들이 자원 확보를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FTA 추진 시 자원 확보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임

● FTA 대상국의 에너지 · 자원 확보 현황을 검토하기 위한 세부 지표로는 ① 석유 매장량 및 생산량 ②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③ 우리나라의 광물 수입액 ④ 우리나라의 광업 투자액으로 관련 현황을 검토하고 비교분석함

4) IMF Economic Outlook

(수출경쟁력) FTA 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상대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 유리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의 시장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를 이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비교 분석함

  -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은 특정시장의 총 수입 중 우리나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점유율이 높을수록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현시비교우위지수 : RCA)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각국의 비교우위체제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국의 품목별 수출비중을 세계시장에서의 품목별 수입비중으로 나눈 값임. 그 값이 1보다 크면 우리나라 수출 특정품목이 FTA 대상국 품목보다 비교우위(경쟁력)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무역특화지수 : TSI)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상품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로 국제경쟁력지수로 표현되기도 하며, 무역특화지수가 0이상일 경우 대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 (수출경합도지수 : ESI) 수출경합도지수는 국가 간 수출상품의 경쟁관계를 나타내는 지수로 값이 1에 가까울 경우 국가 간 수출상품이 서로 경합이 치열함을 뜻함.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경합관계가 클 경우 FTA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평가함

【 참고 】 수출경쟁력 지수 계산 방식

① 시장점유율 : FTA 대상국의 총 수입액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음

$$\text{시장점유율}_{ij} = EX_{ij}/IM_j \times 100$$

EX_{ij}= 한국(i)의 대 FTA 대상국(j) 총수출액

IM_j = FTA 대상국(j)의 대세계 수입액

- 시장점유율의 경우, 특정 시점의 점유율을 비교분석하는 것보다, 동태적인 변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2~15년 시장점유율의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분석함

②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세계 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일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로, 본 연구에서는 FTA 대상국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함

$$RCA_{ij}^{k} = \frac{X_{ij}^{k}}{X_{ij}} / \frac{M_j^{k}}{M_j},\ \text{한국}(i),\ \text{FTA대상국}(j),\ k\text{품목}=1,2,\cdots,n$$

- RCA_{ij}^{k} = k품목에 대한 한국(i)의 대FTA대상국(j) 현시비교우위지수
- X_{ij}^{k} = k품목에 대한 한국(i)의 대FTA 대상국(j) 수출액
- X_{ij} = 한국(i)의 대FTA대상국(j) 총수출액
- M_j^{k} = k품목에 대한 FTA대상국(j)의 대세계 수입액
- M_j = FTA대상국(j)의 대세계 수입액

- $RCA_{ij}^{k} > 1$일 경우, k상품이 FTA대상국(j)에서 비교우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총 수출품목(HS 6단위) 중에서 RCA 지수가 1 이상인 품목의 개수를 파악하여 국가별로 비교분석 함

③ 무역특화지수(TSI) : 특정품목의 순수출액(수출-수입)을 총교역액(수출+수입)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본 연구에서는 FTA대상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함

$$TSI_{ij}^{k} = \frac{X_{ij}^{k} - M_{ij}^{k}}{X_{ij}^{k} + M_{ij}^{k}},\ \text{한국}(i),\ \text{FTA대상국}(j),\ k\text{품목}=1,2,\cdots,n$$

- TSI_{ij}^{k} = k품목에 대한 한국(i)의 대FTA대상국(j) 무역특화지수
- X_{ij}^{k} = k품목에 대한 한국(i)의 대FTA 대상국(j) 수출액

【 참고 】 수출경쟁력 지수 계산 방식

· M_{ij}^{k} = k품목에 대한 한국(i)의 대FTA대상국(j) 수입액

- TSI_{ij}^{k}>0일 경우, k상품이 FTA대상국(j)에서 비교우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총 수출품목(HS 6단위) 중에서 TSI 지수가 0 이상인 품목의 개수를 파악하여 국가별로 비교분석 함

④ 수출경합도지수(ESI):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이 높다는 가정 하에 특정시장에서 양국 간의 경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FTA대상국 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합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함

$$ESI_{ig}^{j} = \sum_{k=1}^{n} Min(X_{ik}^{j}, X_{gk}^{j}),$$

한국(i), FTA대상국(j), 주요경쟁국(g): 중국, 일본, 미국, ASEAN, EU
k품목=$1,2,\cdots,n$

· ESI_{ig}^{j} = 한국(i)의 FTA대상국(j)에서의 주요경쟁국과 수출경합도지수

· X_{ik}^{j} = 한국(i)의 대FTA 대상국(j) 수출 중 k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 X_{gk}^{j} = 주요경쟁국(g)의 대FTA대상국(j) 수출 중 k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 ESI값이 1에 가까울수록 한국과 주요경쟁국 간 수출은 경쟁적인 상태임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총 수출품목(HS 6단위)을 기준으로 수출경합도를 분석하며, 한국과 주요경쟁국(중국, 일본, 미국, ASEAN, EU)의 수출경합도지수는 주요경쟁국 각각의 수출 비중을 계산한 후, 이를 평균한 수출 비중을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추정함[5)]

(국가위험도) FTA 체결 시 FTA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및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위험도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Global Insight IHS(Information Handing Services)에서 제공하는 국가위험도지수(정치, 경제, 법률, 조세, 국가운영, 치안)를 이용하여 국가의 위험도를 비교분석함

5) 현대경제연구원(2016), "주요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국간 수출경합도 및 점유율 분석"

Ⅲ.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선정

1.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2015년도 기준 각국의 GDP, 1인당 GDP[6], 총인구수를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으로 시장규모가 큰 국가들을 선정

● 아래 표와 같이 검토대상국 가운데 SACU,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알제리 등이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시장규모(2015년 기준)>

전체 순위	국가명	GDP		1인당 GDP		인구		총점수
		억달러	점수	달러	점수	백만명	점수	
1	SACU(5개국)	3,468	10	21,019	10	63.2	8	28
2	나이지리아	4,868	10	2,672	6	182.2	10	26
3	방글라데시	1,951	9	1,212	5	161.0	10	24
4	알제리	1,648	9	4,154	7	39.7	6	22
4	앙골라	1,026	9	4,101	7	25.0	6	22
4	이라크	1,801	9	4,944	7	36.4	6	22
4	수단	972	9	2,415	6	40.2	7	22
4	우크라이나	906	9	2,115	6	45.2	7	22
9	모로코	1,006	9	2,878	6	34.4	6	21
10	도미니카공화국	681	7	6,468	8	10.5	5	20
10	스리랑카	823	8	3,926	6	21.0	6	20
12	레바논	471	6	8,048	9	5.9	4	19
12	우즈베키스탄	667	7	2,132	6	31.3	6	19
12	케냐	634	7	1,377	5	46.1	7	19
12	트리니나드토바고	236	5	17,322	10	1.4	4	19
16	가봉	143	5	8,266	9	1.7	4	18
16	아제르바이젠	530	7	5,497	7	9.6	4	18
16	투르크메니스탄	359	6	6,672	8	5.4	4	18
19	가나	375	6	1,370	5	27.4	6	17
19	볼리비아	330	6	3,077	6	10.7	5	17
19	세르비아	372	6	5,237	7	7.1	4	17
19	예멘	377	6	1,406	5	26.8	6	17
19	요르단	375	6	4,940	7	7.6	4	17
19	코트디부아르	318	6	1,399	5	22.7	6	17

6) GDP와 1인당 GDP는 명목기준을 사용함

전체 순위	국가명	GDP		1인당 GDP		인구		총점수
		억달러	점수	달러	점수	백만명	점수	
19	튀니지	430	6	3,822	6	11.3	5	17
26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62	5	4,249	7	3.8	4	16
26	자메이카	143	5	5,106	7	2.8	4	16
26	카메룬	284	5	1,217	5	23.3	6	16
29	몽골	117	5	3,968	6	3.0	4	15
29	잠비아	212	5	1,305	5	16.2	5	15

주 : 1)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2) 각 지표별 점수는 일정한 범위를 선정하여 점수를 부여함

GDP 기준	점수	1인당 GDP 기준	점수	인구 기준	점수
2,000억$ 이상	10	10,000$ 이상	10	1억명 이상	10
900억$ 이상~2,000억$ 미만	9	8,000$ 이상~10,000$ 미만	9	8천만명 이상~1억명 미만	9
700억$ 이상~900억$ 미만	8	6,000$ 이상~8,000$ 미만	8	6천만명 이상~8천만명 미만	8
500억$ 이상~700억$ 미만	7	4,000$ 이상~6,000$ 미만	7	4천만명 이상~6천만명 미만	7
300억$ 이상~500억$ 미만	6	2,000$ 이상~4,000$ 미만	6	2천만명 이상~4천만명 미만	6
100억$ 이상~300억$ 미만	5	2,000$ 미만	5	2천만명 미만	5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현재의 시장성장세와 향후 성장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IMF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제공하는 실질 GDP 실적치 및 전망치를 기준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을 선정

● 아래 표와 같이 검토대상국 가운데 방글라데시, 코트디부아르, 우즈베키스탄, 케냐, 투르크메니스탄, 도미니카공화국 등의 국가가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성장잠재력 : 실질GDP 증가율>

전체 순위	국가명	2014~16 (3년평균, 실적치 및 전망치)		2017~19 (3년평균, 전망치)		2020~22 (3년평균, 전망치)	
		%	점수	%	점수	%	점수
1	**방글라데시**	6.68	10	6.97	10	7.00	10
1	**코트디부아르**	8.43	10	7.08	10	6.84	10
1	**우즈베키스탄**	7.97	10	6.00	10	6.00	10
4	**케냐**	5.66	9	5.72	9	6.49	10
4	**투르크메니스탄**	7.67	10	5.97	9	5.22	9
4	**도미니카공화국**	7.07	10	5.10	9	5.00	9
7	**스리랑카**	4.65	9	4.74	9	5.20	9
7	**가나**	3.98	8	6.95	10	5.18	9
7	**카메룬**	5.38	9	4.28	9	5.18	9
10	**몽골리아**	3.74	8	3.23	8	6.66	10
10	**모로코**	2.85	8	4.14	9	4.50	9
12	가봉	3.53	8	2.58	8	4.75	9
12	잠비아	3.53	8	3.87	8	4.54	9
12	볼리비아	4.80	9	3.73	8	3.50	8

전체 순위	국가명	2014~16 (3년평균, 실적치 및 전망치)		2017~19 (3년평균, 전망치)		2020~22 (3년평균, 전망치)	
		%	점수	%	점수	%	점수
15	튀니지	1.45	7	3.10	8	4.40	9
15	세르비아	0.57	7	3.34	8	4.00	9
1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22	8	3.43	8	3.98	8
15	수단	3.18	8	3.65	8	3.56	8
15	요르단	2.53	8	2.50	8	2.97	8
15	SACU(5개국)	2.24	8	2.60	8	2.96	8
21	레바논	1.33	7	2.50	8	3.00	8
21	자메이카	1.01	7	2.35	8	2.79	8
21	알제리	3.93	8	1.09	7	2.07	8
21	이라크	5.23	9	0.22	7	1.56	7
25	예멘	-12.69	3	8.13	10	5.64	9
25	아제르바이젠	0.04	7	1.35	7	2.94	8
25	나이지리아	2.47	8	1.53	7	1.81	7
25	앙골라	2.60	8	1.42	7	1.43	7
29	우크라이나	-4.67	4	2.91	8	4.04	9
30	트리디나드토바고	-2.09	5	2.34	8	1.96	7

주 : 실질GDP성장률에 대한 점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함

기준	점수	기준	점수
6% 이상~8% 미만	10	-2% 이상~0% 미만	6
4% 이상~6% 미만	9	-4% 이상~-2% 미만	5
2% 이상~4% 미만	8	-6% 이상~-4% 미만	4
0% 이상~2% 미만	7	-4% 미만	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시장규모와 성장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방글라데시, SACU, 우즈베키스탄, 도미나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케냐 등의 국가가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함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순위>

전체 순위	국가명	시장규모 점수	성장잠재력 점수	총점수
1	**방글라데시**	24	45	69
2	**SACU(5개국)**	28	36	64
2	**우즈베키스탄**	19	45	64
4	**도미니카공화국**	20	42	62
4	**코트디부아르**	17	45	62
6	**케냐**	19	42	61
7	**스리랑카**	20	40.5	60.5
8	**모로코**	21	39	60
8	**투르크메니스탄**	18	42	60
10	**나이지리아**	26	33	59
11	수단	22	36	58
12	가나	17	40.5	57.5

전체 순위	국가명	시장규모 점수	성장잠재력 점수	총점수
13	알제리	22	34.5	56.5
13	이라크	22	34.5	56.5
13	카메룬	16	40.5	56.5
16	가봉	18	37.5	55.5
17	앙골라	22	33	55
18	볼리비아	17	37.5	54.5
19	몽골	15	39	54
20	우크라이나	22	31.5	53.5
20	레바논	19	34.5	53.5
22	세르비아	17	36	53
22	요르단	17	36	53
22	튀니지	17	36	53
25	잠비아	15	37.5	52.5
26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6	36	52
27	아제르바이젠	18	33	51
28	자메이카	16	34.5	50.5
29	예멘	17	33	50
30	트리니나드토바고	19	30	49

주 :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의 총점수 계산 시 성장잠재력에 가중치 1.5를 부여함[7)]
자료 : 저자작성

7) 신선영(2008)의 연구에서 향후 성장잠재력에 대해서 1.5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

2. 교역 · 투자 및 무역장벽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상국을 선정할 때,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교류와 무역장벽 요인이 중요함

-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교류가 많을 때, FTA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역장벽 측면에서는 관세율이 높을수록 FTA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비관세장벽이 낮을수록 FTA 발효 후 이행 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검토대상국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알제리,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SACU, 모로코,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교역 · 투자 및 무역장벽(2015년 기준)>

전체 순위	국가명	한국과의 교역규모		한국의 투자규모		무역장벽(MFN)		비관세장벽 (NTB)	총점수
		백만달러	점수	백만달러	점수	%	점수	점수	
1	알제리	1,266	10	206	6	18.8	10	5.95	31.95
2	방글라데시	1,452	10	272	6	13.9	9	5.46	30.46
3	나이지리아	986	9	297	6	12.1	8	5.03	28.03
4	SACU	2,374	10	315	6	7.6	6	5.97	27.97
5	모로코	702	8	102	5	11.5	8	5.15	26.15
6	우즈베키스탄	948	9	672	8	14.8	9	0.00	26.00
7	예멘	144	5	1,315	10	7.5	6	4.71	25.71
8	가나	246	6	97	4	12.2	8	6.8	24.80
9	볼리비아	460	7	153	5	11.6	8	3.57	23.57
10	몽골	219	6	440	7	5.0	5	5.25	23.25
11	스리랑카	364	6	178	5	9.3	7	5.10	23.10
12	우크라이나	695	8	293	6	4.5	4	4.94	22.94
13	튀니지	207	6	2	0	15.5	10	6.18	22.18
14	가봉	312	6	9	0	17.7	10	5.48	21.48
15	잠비아	307	6	1	0	13.6	9	6.40	21.4
16	요르단	669	8	18	0	10.0	7	6.02	21.02
17	이라크	6,476	10	360	6	5.0	5	0.00	21.00
18	코트디부아르	92	4	61	3	12.2	8	5.77	20.77
19	앙골라	726	8	7	0	11.4	8	3.13	19.13
20	케냐	267	6	7	0	12.9	8	4.76	18.76

전체 순위	국가명	한국과의 교역규모		한국의 투자규모		무역장벽(MFN)		비관세장벽 (NTB)	총점수
		백만달러	점수	백만달러	점수	%	점수	점수	
21	카메룬	27	1	6	0	18.2	10	5.88	16.88
22	레바논	219	6	8	0	5.6	5	5.85	16.85
23	도미니카공화국	392	6	4	0	7.3	6	4.82	16.82
24	아제르바이젠	119	5	3	0	9.1	7	4.81	16.81
25	세르비아	138	5	12	0	7.4	6	5.56	16.56
26	수단	161	5	149	5	6.0	5	0.00	15.00
27	자메이카	25	1	13	0	8.5	6	6.88	13.88
28	트리니다드토바고	230	6	38	1	-	0	6.64	13.64
2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7	0	-	0	6.3	5	5.43	10.43
30	투르크메니스탄	362	6	-	0	-	0	0.00	6.00

주 : 1) 비관세장벽의 경우 비관세장벽 자유도를 나타내는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관세장벽이 낮은 것을 의미함
2)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2016년도 기준이며, 투자규모는 2016년까지의 누적금액임
3) 무역장벽(MFN)은 2015년 기준, 비관세장벽(NTB)는 2014년 기준
4) 각 지표별 점수는 일정한 범위를 선정하여 점수를 부여함

한국과의 교역 규모 및 투자규모	점수	한국과의 교역 규모 및 투자규모	점수	무역장벽	점수
10억$ 이상	10	1천만$ 이상~2억$ 미만	5	15% 이상	10
8억$ 이상~10억$ 미만	9	8백만$ 이상~1천만$ 미만	4	13% 이상~15% 미만	9
6억$ 이상~8억$ 미만	8	6백만$ 이상~8백만$ 미만	3	11% 이상~13% 미만	8
4억$ 이상~6억$ 미만	7	4백만$ 이상~6백만$ 미만	2	9% 이상~11% 미만	7
2억$ 이상~4억$ 미만	6	2백만$ 이상~4백만$ 미만	1	7% 이상~9% 미만	6
		2백만$ 미만	0	5% 이상~7% 미만	5
				3% 이상~5% 미만	4
				1% 이상~3% 미만	3

자료 : 무역통계(한국무역협회 K-stat)
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관세율(WTO, World Tariff Profiles 2016)
비관세장벽(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6)

3. 자원 확보

■ 자원부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FTA 대상국의 자원 보유 및 생산 현황과, 우리나라에 필요한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함

● 석유는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향후 대체에너지가 개발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판단됨. 석유매장량과 생산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라크, 나이지라, 알제리, 앙골라, 아제르바이젠 등의 국가들이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2016년 기준)>

전체 순위	국가명	석유 매장량		석유 생산량		총점수
		10억배럴	점수	천배럴/일	점수	
1	**이라크**	143.00	10	4,054.0	10	20
2	**나이지리아**	37.00	9	2,317.0	10	19
2	**알제리**	12.00	9	1,370.0	10	19
4	**앙골라**	8.40	8	1,842.0	10	18
5	**아제르바이젠**	7.00	8	848.5	9	17
5	**가봉**	2.00	8	213.3	9	17
7	**투르크메니스탄**	0.60	7	243.1	9	16
7	**가나**	0.66	7	102.4	9	16
7	**카메룬**	0.20	7	96.0	9	16
7	**수단**	5.00	8	64.8	8	16
7	**예멘**	3.00	8	47.6	8	16
12	트리니다드토바고	0.70	7	78.6	8	15
12	우즈베키스탄	0.60	7	60.1	8	15
12	볼리비아	0.21	7	55.6	8	15
12	튀니지	0.40	7	47.1	8	15
12	우크라이나	0.40	7	35.9	8	15
12	코트디부아르	0.10	7	33.0	8	15
12	세르비아	0.10	7	20.3	8	15
19	방글라데시	0.03	6	4.0	7	13
19	SACU	0.02	6	3.0	7	13
21	몽골	0.00	0	23.2	8	8
22	모로코	0.00	0	0.2	6	6
2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0.00	0	0.0	0	0
23	도미니카공화국	0.00	0	0.0	0	0
23	자메이카	0.00	0	0.0	0	0
23	요르단	0.00	0	0.0	0	0
23	케냐	0.00	0	0.0	0	0
23	레바논	0.00	0	0.0	0	0
23	스리랑카	0.00	0	0.0	0	0
23	잠비아	0.00	0	0.0	0	0

주 : 석유매장량과 석유생산량에 대한 점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함

석유매장량	점수	석유생산량	점수
1,000억 배럴 이상	10	1백만 배럴 이상	10
100억 배럴 이상~1,000억 배럴 미만	9	1십만 배럴 이상~1백만 배럴 미만	9
10억 배럴 이상~100억 배럴 미만	8	10,000 배럴 이상~1십만 배럴 미만	8
1억 배럴 이상~10억 배럴 미만	7	1,000배럴 이상~10,000배럴 미만	7
1얼 배럴 미만	6	100배럴 이상~1,000배럴 미만	6
매장량이 없을 경우	0	생산량이 없을 경우	0

자료 : CIA, The World Factbook 2016

●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여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또한 중요하며, 천연가스 보유량 및 생산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투르크메니스탄,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가 순위가 높음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2016년 기준)>

전체 순위	국가명	천연가스 매장량		천연가스 생산량		총점수
		100억 cubic	점수	10억 cubic/일	점수	
1	**투르크메니스탄**	**750.40**	**10**	**76.00**	**10**	**20**
2	**알제리**	**450.40**	**9**	**83.29**	**10**	**19**
2	**우즈베키스탄**	**184.10**	**9**	**61.74**	**10**	**19**
2	**나이지리아**	**511.10**	**10**	**43.84**	**9**	**19**
5	**우크라이나**	**110.40**	**9**	**19.90**	**9**	**18**
6	**아제르바이젠**	**99.11**	**8**	**19.96**	**9**	**17**
7	**트리니다드토바고**	**32.57**	**7**	**41.59**	**9**	**16**
7	**방글라데시**	**23.30**	**7**	**23.90**	**9**	**16**
7	**볼리비아**	**29.59**	**7**	**21.40**	**9**	**16**
7	**예멘**	**47.85**	**8**	**9.30**	**8**	**16**
11	**이라크**	**315.80**	**9**	**0.91**	**6**	**15**
12	코트디부아르	2.83	6	2.00	7	13
12	튀니지	6.51	6	1.66	7	13
12	앙골라	30.80	7	0.73	6	13
12	카메룬	13.51	7	0.47	6	13
16	SACU	7.73	6	0.95	6	12
16	세르비아	4.81	6	0.56	6	12
16	가봉	2.83	6	0.42	6	12
19	요르단	0.60	5	0.20	6	11
19	모로코	0.14	5	0.10	6	11
19	가나	2.27	6	0.05	5	11
22	수단	2.12	6	0.00	0	6
2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0.00	0	0.00	0	0
24	도미니카공화국	0.00	0	0.00	0	0
25	자메이카	0.00	0	0.00	0	0
26	케냐	0.00	0	0.00	0	0
27	레바논	0.00	0	0.00	0	0
28	몽골	0.00	0	0.00	0	0
29	스리랑카	0.00	0	0.00	0	0
30	잠비아	0.00	0	0.00	0	0

주 : 천연가스 매장량과 천연가스 생산량에 대한 점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함

천연가스매장량	점수	천연가스생산량	점수
5조 cubic 이상	10	500억 cubic 이상	10
1조 cubic 이상~5조 cubic 미만	9	100억 cubic 이상~500억 cubic 미만	9
5,000억 cubic 이상~1조 cubic 미만	8	50억 cubic 이상~100억 cubic 미만	8
1,000억 cubic 이상~5,000억 cubic 미만	7	10억 cubic 이상~50억 cubic 미만	7
100억 cubic 이상~1,000억 cubic 미만	6	1억 cubic 이상~10억 cubic 미만	6
100억 cubic 미만	5	1억 cubic 미만	5
매장량이 없는 경우	0	생산량이 없는 경우	0

자료 : CIA, The World Factbook 2016

● 석유와 천연가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와 직접투자가 많은 국가들을 살펴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라크, 예멘, 나이지리아, 볼리비아, 몽골, SACU 등의 국가가 순위가 높음

<우리나라의 광물 수입액 및 광업 직접투자액>

전체 순위	국가명	우리나라의 광물수입액		우리나라 광업 투자액		총점수
		천달러	점수	천달러	점수	
1	**이라크**	**27,247,640**	**10**	**359,263**	**9**	**19**
2	**예멘**	**4,370,004**	**8**	**1,314,921**	**10**	**18**
2	**나이지리아**	**6,495,077**	**9**	**157,822**	**9**	**18**
4	**볼리비아**	**1,210,351**	**8**	**73,115**	**8**	**16**
5	**몽골**	**62,366**	**6**	**121,301**	**9**	**15**
5	SACU	**3,112,566**	**8**	**43,463**	**7**	**15**
7	**모로코**	**259,650**	**7**	**35,388**	**7**	**14**
8	**코트디부아르**	**105**	**5**	**58,411**	**8**	**13**
8	**방글라데시**	**42,886**	**6**	**44,049**	**7**	**13**
8	**우즈베키스탄**	**20,094**	**6**	**43,208**	**7**	**13**
11	**카메룬**	**49,851**	**6**	**4,307**	**6**	**12**
11	**스리랑카**	**19,846**	**6**	**1,380**	**6**	**12**
13	잠비아	58,635	6	246	5	11
13	요르단	20,325	6	71	5	11
15	가나	3,623	5	164	5	10
16	알제리	3,900,623	8	–	0	8
16	가봉	1,522,026	8	–	0	8
18	앙골라	561,769	7	–	0	7
18	트리니다드토바고	497,554	7	–	0	7
18	튀니지	287,287	7	–	0	7
18	우크라이나	220,754	7	–	0	7
22	수단	58,702	6	–	0	6
22	세르비아	13,716	6	–	0	6
24	아제르바이젠	3,296	5	–	0	5
24	자메이카	2,607	5	–	0	5
24	레바논	1,680	5	–	0	5
24	케냐	629	5	–	0	5
24	도미니카공화국	338	5	–	0	5
2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0	–	0	0
30	투르크메니스탄	–	0	–	0	0

주 : 1) 우리나라 광물수입액은 2013~16년 누적금액이며, 우리나라 광업투자액은 2016년까지의 누적금액임
2) 우리나라 광물수입액 및 광업투자액에 대한 점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함

우리나라 광물수입액	점수	우리나라 광업 투자액	점수
100억$ 이상	10	10억$ 이상	10
50억$ 이상~100억$ 미만	9	1억$ 이상~10억$ 미만	9
10억$ 이상~50억$ 미만	8	5,000민$ 이상~1억$ 미만	8
1억$ 이상~10억$ 미만	7	1,000만$ 이상~5,000만$ 미만	7
1,000만$ 이상~1억$ 미만	6	100만$ 이상~1,000만$ 미만	6
1,000만$ 미만	5	5만$ 이상~100만$ 미만	5
수입액이 없는 경우	0	투자액이 없는 경우	0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검토대상국의 자원보유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이지리아, 이라크, 예멘,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등의 국가 순위가 높음

<자원 확보 최종 순위>

전체 순위	국가명	석유매장량 및 생산량 점수	천연가스매장량 및 생산량 점수	우리나라 광물 수입액 및 광업투자액 점수	총점수
1	**나이지리아**	19	19	18	56
2	**이라크**	20	15	19	54
3	**예멘**	16	16	18	50
4	**볼리비아**	15	16	16	47
4	**우즈베키스탄**	15	19	13	47
6	**알제리**	19	19	8	46
7	**방글라데시**	13	16	13	42
8	**카메룬**	16	13	12	41
8	**코트디부아르**	15	13	13	41
10	SACU	13	12	15	40
10	**우크라이나**	15	18	7	40
12	아제르바이젠	17	17	5	39
13	앙골라	18	13	7	38
13	트리니다드토바고	15	16	7	38
15	가나	16	11	10	37
15	가봉	17	12	8	37
17	투르크메니스탄	16	20	0	36
18	튀니지	15	13	7	35
19	세르비아	15	12	6	33
20	모로코	6	11	14	31
21	수단	16	6	6	28
22	몽골	8	0	15	23
23	요르단	0	11	11	22
24	스리랑카	0	0	12	12
25	잠비아	0	0	11	11
26	도미니카공화국	0	0	5	5
26	레바논	0	0	5	5
26	자메이카	0	0	5	5
26	케냐	0	0	5	5
3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0	0	0	0

자료 : 저자작성

4. 수출경쟁력

■ FTA 체결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출 품목이 FTA대상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유리함

● 따라서, FTA 대상국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특화지수(TSI), 수출경합도지수(ESI)를 비교분석함

- 시장점유율은 현재 시점의 점유율 보다는 동태적인 변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2012년 대비 2015년 FTA 대상국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수출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값이 1보다 크면 우리나라 수출상품이 FTA 대상국 품목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체 수출품목(HS 6단위)을 기준으로 RCA 지수가 1이상인 품목의 개수가 많을수록 수출경쟁력이 있음

- 무역특화지수는 값이 0 이상일 경우, FTA대상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전체 수출품목(HS 6단위)을 기준으로 TSI 지수가 0 이상인 품목의 개수가 많을수록 수출경쟁력이 있음

- 수출경합도지수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국가 간 수출상품이 서로 경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뜻하며, 국가 간 경합관계가 클 경우 FTA 효과가 극대화되어 FTA 체결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

●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 4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방글라데시, 이라크, 볼리비아, SACU 등의 국가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중 방글라데시, 이라크, SACU 등의 국가들은 시장점유율의 연평균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계산 시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들이 대체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FT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대FTA대상국 수출경쟁력 분석>

전체 순위	국가명	시장점유율 (2012~15 연평균증가율)		현시비교우위지수 (RCA>1인 품목개수)		무역특화지수 (TSI>0인 품목개수)		수출경합도지수		총점수
		%	점수	개수	점수	개수	점수	MSI	점수	
1	몽골	0.44	8	838	10	1,501	10	0.307	10	38
2	방글라데시	-22.18	5	547	10	1,421	10	0.279	9	34
2	이라크	-6.52	7	418	9	1,277	10	0.248	8	34
4	볼리비아	30.02	9	202	7	484	7	0.379	10	33
4	SACU	-14.04	6	380	8	1,202	10	0.285	9	33
4	나이지리아	-6.34	7	359	8	1,012	10	0.219	8	33
7	레바논	-9.61	7	272	7	650	8	0.321	10	32
7	요르단	-17.11	6	239	7	812	9	0.300	10	32
7	알제리	-7.83	7	304	8	802	9	0.206	8	32
10	가나	0.08	8	191	6	614	8	0.256	9	31
10	스리랑카	-21.62	5	469	9	1,046	10	0.178	7	31
10	우즈베키스탄	-11.38	6	486	9	1,436	10	0.105	6	31
13	도미니카공화국	14.83	9	174	6	462	7	0.235	8	30
13	모로코	-9.10	7	238	7	617	8	0.206	8	30
15	튀니지	8.58	8	183	6	630	8	0.196	7	29
15	수단	1.01	8	218	7	487	7	0.184	7	29
15	앙골라	78.98	10	77	5	718	8	0.108	6	29
18	투르크메니스탄	-20.06	5	242	7	400	7	0.273	9	28
18	우크라이나	-30.38	5	298	7	703	8	0.230	8	28
18	코트디부아르	-10.03	6	217	7	500	7	0.215	8	28
21	트리니다드토바고	9.46	8	96	5	215	6	0.241	8	27
21	잠비아	4.13	8	113	6	227	6	0.186	7	27
21	케냐	-14.62	6	285	7	692	8	0.141	6	27
24	자메이카	-7.17	7	107	6	153	5	0.233	8	26
24	아제르바이젠	-19.36	6	141	6	427	7	0.166	7	26
24	세르비아	12.96	9	162	6	363	6	0.086	5	26
27	예멘	26.25	9	97	5	182	5	0.148	6	25
28	가봉	1.94	8	71	5	164	5	0.121	6	24
28	카메룬	-18.88	6	152	6	278	6	0.116	6	24
3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8.70	7	73	5	109	5	0.039	5	22

주 : 각 지표별 점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함

시장점유율	점수	RCA(품목개수)	점수	TSI(품목개수)	점수	수출경합도지수	점수
50% 이상	10	500개 이상	10	1,000개 이상	10	0.3 이상	10
10% 이상~50% 미만	9	400개 이상~500개 미만	9	800개 이상~1,000개 미만	9	0.25 이상~0.3 미만	9
0%이상~10% 미만	8	300개 이상~400개 미만	8	600개 이상~800개 미만	8	0.2 이상~0.25 미만	8
-10% 이상~0% 미만	7	200개 이상~300개 미만	7	400개 이상~600개 미만	7	0.15 이상~0.2 미만	7
-20% 이상~-10% 미만	6	100개 이상~200개 미만	6	200개 이상~400개 미만	6	0.1 이상~0.15 미만	6
-20% 미만	5	100개 미만	5	200개 미만	5	0.1 미만	5

자료 : UNcomtrade, 한국무역협회 K-stat

5. 국가위험도

■ 국가위험도는 FTA 체결 시 수반될 국가 위험성에 대한 지표로 FTA 대상국 설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 국가위험도는 Global Insight IHS에서 발표하는 국가위험도 자료[8]를 사용하였으며, 이 지표는 정치, 경제, 법률, 조세, 국가운영, 치안의 6가지 기준으로 종합 분석한 자료임

● FTA대상국에 대한 국가위험도를 살펴본 결과,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SACU, 모로코 등의 국가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FTA대상국 국가위험도>

전체순위	국가명	총점수	정치	경제	법률	조세	국가운영	치안
1	세르비아	1.9	1.8	1.6	1.9	2.2	2.4	1.7
2	도미니카공화국	2.0	2.1	1.1	2.1	2.1	3.0	1.5
2	트리니다드토바고	2.0	2.0	1.6	1.8	2.6	2.2	1.5
4	SACU	2.1	2.1	2.1	2.0	2.2	2.8	1.6
4	모로코	2.1	1.9	1.2	2.3	2.7	2.7	1.8
4	스리랑카	2.1	2.0	2.1	1.9	2.4	2.5	1.7
4	자메이카	2.1	2.1	1.9	1.7	2.8	2.6	1.4
8	아제르바이젠	2.2	1.2	3.0	2.2	1.8	2.3	2.7
9	몽골	2.3	1.4	4.1	2.2	2.9	2.5	0.6
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3	3.0	1.7	2.1	2.4	2.7	2.0
9	잠비아	2.3	2.1	2.3	2.3	2.8	3.0	1.5
9	튀니지	2.3	2.5	1.9	2.2	2.5	2.4	2.5
13	가나	2.4	2.5	1.9	2.3	3.2	2.8	1.9
13	요르단	2.4	2.0	2.2	2.5	2.8	2.9	2.1
15	코트디부아르	2.5	2.0	2.2	2.4	2.3	3.1	2.7
16	케냐	2.6	2.1	2.0	2.2	2.7	3.6	2.7
17	가봉	2.7	2.3	2.4	2.9	2.9	3.9	1.8
17	방글라데시	2.7	2.5	2.3	2.6	2.5	4.1	2.4
17	카메룬	2.7	2.1	2.0	2.6	3.3	3.5	2.4
20	투르크메니스탄	2.8	1.8	3.3	3.6	3.0	3.6	1.5

8) Global Insight IHS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분기별 6개 분야별로 0점에서 최고 10점까지 평가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국가위험도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음)
① 정치 : 정부안정성, 정책안정성, 국가실패
② 경제 : 불황, 인플레이션, 통화절하, 자본이동, 지불불능, 저개발
③ 법률 : 몰수, 국가계약변경, 계약이행
④ 조세 : 중세, 조세일관성
⑤ 국가운영 : 부패, 규제부담, 인프라 붕괴, 파업
⑥ 치안 : 테러, 내전, 전쟁, 항의 및 폭동

전체순위	국가명	총점수	정치	경제	법률	조세	국가운영	치안
21	앙골라	3.0	2.3	3.5	2.8	3.0	4.2	2.0
21	우즈베키스탄	3.0	2.2	3.4	3.5	3.4	3.2	2.0
23	볼리비아	3.1	2.6	2.3	4.1	3.5	3.9	2.1
24	알제리	3.3	2.6	2.7	4.2	3.9	3.6	2.8
25	레바논	3.4	3.2	2.0	3.7	3.9	4.1	3.5
26	우크라이나	3.6	4.0	3.7	3.4	3.2	3.2	3.9
27	나이지리아	3.8	3.0	4.9	3.2	3.9	4.0	3.6
28	이라크	4.1	5.2	3.0	4.2	3.6	4.3	4.4
29	수단	4.2	3.5	5.5	4.2	4.1	4.1	3.8
30	예멘	5.9	6.6	7.3	5.3	5.5	5.9	4.9

자료 : Global Insight IHS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리스트 제시

■ 앞서 5가지 기준별로 검토대상국들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하에서는 FTA 검토대상국(30개) 가운데 최종적으로 10개국(경제권)을 선정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함

● 먼저 ①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②교역 및 무역장벽 ③자원 확보 ④수출경쟁력의 4가지 기준에 대한 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⑤국가위험도와 상대국의 FTA 현황을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별로 FTA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

– ①~④까지의 기준으로 가지고 FTA 우성협상 대상국을 선별한 결과,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이라크 등의 국가와의 FTA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후보 국가 리스트>

전체 순위	국가명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점수	교역투자 및 무역장벽 점수	자원 확보 점수	수출경쟁력 점수	평균점수
1	나이지리아	59.0	28.0	56	33	44.01
2	방글라데시	69.0	30.5	42	34	43.87
3	우즈베키스탄	64.0	26.0	47	31	42.00
4	알제리	56.5	32.0	46	32	41.61
5	이라크	56.5	21.0	54	34	41.38
6	SACU	64.0	28.0	40	33	41.24
7	볼리비아	54.5	23.6	47	33	39.52
8	코트디부아르	62.0	20.8	41	28	37.94
9	예멘	50.0	25.7	50	25	37.68
10	가나	57.5	24.8	37	31	37.58
11	모로코	60.0	26.2	31	30	36.79
12	우크라이나	53.5	22.9	40	28	36.11
13	앙골라	55.0	19.1	38	29	35.28
14	튀니지	53.0	22.2	35	29	34.80
15	카메룬	56.5	16.9	41	24	34.60
16	몽골	54.0	23.3	23	38	34.56
17	가봉	55.5	21.5	37	24	34.50
18	아제르바이젠	51.0	16.8	39	26	33.20
19	수단	58.0	15.0	28	29	32.50

전체 순위	국가명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점수	교역투자 및 무역장벽 점수	자원 확보 점수	수출경쟁력 점수	평균점수
20	투르크메니스탄	60.0	6.0	36	28	32.50
21	세르비아	53.0	16.6	33	26	32.14
22	요르단	53.0	21.0	22	32	32.01
23	트리니나드토바고	49.0	13.6	38	27	31.91
24	스리랑카	60.5	23.1	12	31	31.65
25	도미니카공화국	62.0	16.8	5	30	28.46
26	잠비아	52.5	21.4	11	27	27.98
27	케냐	61.0	18.8	5	27	27.94
28	레바논	53.5	16.9	5	32	26.84
29	자메이카	50.5	13.9	5	26	23.85
3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52.0	10.4	0	22	21.11

주 : 최종순위는 각 지표별 점수를 단순 평균[9]한 점수로 순위를 매김
자료 : 저자 작성

- 위에 제시한 후보국가 중 10개 우선순위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위험도 및 FTA 현황을 살펴본 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FTA 우선협상대상국을 분류한 결과, 단기적으로 SACU, 모로코, 스리랑카와의 FTA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최종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리스트>

추진시기	국가명	국가 위험도	FTA 현황	전략적 중요성
단기	**SACU**	**2.1**	**· EU와 EPA 발효, EFTA와 FTA 발효 인도와 FTA 검토(남아공), 중국과 FTA 검토(남아공)**	**아프리카 시장 진출 거점 경제권**
	우즈베키스탄	**3.0**	**· 한국과 무역협정 공동연구 방안 발표, CIS 국가 간 무관세 협정체결 해당국**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
	코트디부아르	**2.5**	**· EU와 FTA 발효, ECOWAS-EU EPA 발효**	**서아프리카의 물류 허브**
중기	방글라데시	2.7	· 태국과 FTA 협상 중, 말레이시아와 FTA 검토 중	중장기 관점에서 시장선점 필요
	가나	2.4	· EU와 EPA 발효(ECOWAS-EU EPA)	서아프리카 원유 주요 생산지
	볼리비아	3.1	· 미국과 FTA 협상 중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세계 최대 리튬 보유
	알제리	3.3	· EFTA와 FTA 검토 중	천연가스 주요 생산지
장기	나이지리아	3.8	· EU와 EPA 발효(ECOWAS-EU EPA)	
	이라크	4.1	· EU와 PTA 발효	
	예멘	5.9	· EU와 EPA 발효(ECOWAS-EU EPA)	

자료 : 저자 작성

9) 각 지표별 점수를 가중치를 배제하고 단순평균으로 분석한 것은 개별 연구자마다 중요하다고 보는 항목에서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의성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음

2.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전략적 중요성 및 통상현황[10)]

■ 이하에서는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중 단기적으로 추진되어야할 3개국(SACU, 우즈베키스탄, 코트디부아르)의 전략적 중요성과 각국의 통상환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봄

(1) SACU

■ SACU 회원국 중에서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남아공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 흑인계층의 소득향상, 정부의 경제성장의지, 등 경제성장 요인이 충분함

■ SACU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거점 국가로 가치를 충분히 소요하고 있음

- SACU 국가 중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 중 경제적 및 사회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아프리카 시장 진출 시 거점 국가로 활용 가능함

■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나미비아)[11)]는 역외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SACU 회원국 간에는 공동통화지역(CMA : Common Monetary Area)이 설립되어 있음

■ SACU 5개 회원국은 제3의 당사국과 새로운 특혜무역협정 협상을 출범하거나 기존의 특혜무역협정을 개정하는 경우, SACU의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

■ SACU 국가들 중 남아공이 무역협정을 가장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EU, EFTA 등 주요 선진국들과 무역협정을 발효하였고, 이후 인도와 특혜무역협정(P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지만, 전진이 더딘 상황임

10) 산업통상자원부,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참고
11) SACU 회원국 중 남아공은 회원국 전체 GDP의 90%를 차지함. 따라서 SACU에 통상환경은 남아공을 통상환경을 위주로 설명함

■ 우리나라와 SACU 국가(남아공)의 교역은 2015년 기준 12.6억 달러, 수입은 14.1억 달러로 우리나라가 약 1.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남아공과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1992년(8.4억 달러)대비 2015년(26.9억 달러) 3배 이상 증가하였고, 남아공은 우리나라 아프리카 지역 교역국 중 가장 많은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부품, 보일러 및 기계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광, 슬랙 및 회, 철강 등임

■ 남아공은 1995년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세장벽을 꾸준히 철폐하고 있지만, 자국의 제조업 육성 및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활용하겠다는 입증을 고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추세로 1999년 50.5%에서 2016년 20~25%까지 인하되었고 동일 수준의 관세율이 2020년까지 유지될 예정임

● 다만,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특정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특정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2015년 2월 18일 우리나라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에서 WTO 양허세율 범위 내인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 남아공의대표적인 수입 규제 품목은 차량용 신품 압축타이어,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중고차량, 중고항공기, 폐기물, 방사성 화학물질, 사행성 도박기기 등이 있음

●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에 따르면, 통관 분류대상, 총 6,650개 품목 가운데 276개 품목이 수입 통제 대상이며, 구체적인 품목목록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 홈페이지(www.itac.org.za)에서 확인 가능함

<남아공 수입규제대상 품목 예시>

품목	수입규제 사유
1. 방사성 화학물질(Radioactive Chemical Elements)	국민보건
2. 신품 압축타이어(New Pneumatic Tyres)	안전기준
3. 1998년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Chemicals liste in the 1998 Convention)	협약 준수
4. 화석연료(Fossil Fuels)	효율적 제조 필요성, 소기업 보호
5. 무기 및 탄약(Arms and Ammunition)	국민안전
6. 도박기기(Gambling Services)	사회질서유지
7. 중고품(전자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항공기, 폐기물 및 스크랩 등)	국내산업 보호 및 환경보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재인용

(2)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 이후 7% 이상의 안정적이고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고, 금, 우라늄,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향후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가능함

- 또한, 한국에 매우 우호적으로 카리모프 前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면서 재임 기간 중 8차례 방한하는 등 공개적으로 친한 성향을 보여 왔음

  - 2015년 5월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우즈벡 무역협정 공동연구' 방안을 발표하여 FTA 가능성이 높은 국가임

  -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의 대중앙아시아 최대교역국으로 자동차 및 기계 품목의 수출이 두드러짐

- 우즈베키스탄 수입 시장에서 자동차 제품, 기계 품목에서 중국, 러시아, 독일 등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FTA 체결이 필요한 상황

- 우즈베키스탄은 수입 대체 및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하여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소비재 수입 시 높은 관세,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12)]

12) KOTRA(2016), "2017 우즈베키스탄 진출 전략"

- 대표 품목은 자동차(관세, 소비세 등 130%), 화장품(관세, 소비세 등 100%) 등임

■ 우즈베키스탄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행정절차로 인해 통관 및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 공공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진출의 애로사항이 있음

(3) 코트디부아르

■ 코트디부아르는 해안을 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역내 국가(부르키나파소, 말리 등)에 물류 공급 통로의 역할을 하는 국가임

-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 항구는 아프리카 2위 규모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함

■ 또한, 내전 종식 후 정국의 안정과 더불어 1차 국가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2014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본부, 아비장 복귀 등 대내외적 요인에 힘입어 연평균 8% 이상 성장[13)]

- 코트디부아르와의 FTA를 통해서 서아프리카 물류 허브의 이점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으며, 코트디부아르의 경제성장 정책을 이용한 전략적인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코트디부아르는 WTO, UEMOA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ECOWAS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회원국으로 2015년부터 ECOWAS 공동대외 관세(CET)를 적용하고 있음

- EOWAS CET에 따라, 서아프리카 지역 수입품은 사회적 생필품은 면세이고, 필수원자재 5%, 중간재 10%, 완제품 20%, 담배 및 주로는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13) KOTRA(2016), "2017 코트디부아르 진출전략"

3. 정책적 시사점

■ 최근의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나라는 신규 FTA를 통해서 신규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 신규 FTA 우선협상국 발굴을 위해 다양한 기준으로 대상국을 분석한 결과, 향후 신규 FTA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단기적으로 SACU, 우즈베키스탄,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FTA 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고 조속한 협상 추진을 검토

-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주로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아직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과는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도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함

-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의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인 추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중기적으로 방글라데시, 가나, 볼리비아, 알제리 등과의 FTA을 염두해두고 해당 국가의 시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나이지리아, 이라크, 예멘과의 FTA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들 국가는 아직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

- 그러나 이라크, 나이지리아의 경우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정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FTA를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함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발굴 연구

Trade Focus 2017년 16호

발행인| 김인호
편집인| 신승관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2017년 5월 15일
인쇄처|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2-97호